

# 1400년전 백제밤하늘 시각화

익산시, 서동축제 10만명 ·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 8만명... 야간역사관광시대 주도



1400년전 백제역사를 '빛'과 첨단기술로 시각화한 익산야간경관축제가 18만명의 관광객몰이에 성공하며 관광 르네상스시대를 열었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2 익산서동축제가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3일간 10만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4일 시에 따르면 서동축제 3일간 10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3일까지 한달간 운영된 미디어페스타방문객이 8만명에 달해 시 자체 추산 18만명이 방문했다.

관광객들에게 1400년 시공간을 빛으로 가로질러 백제의 '서동왕자, 미륵사지' 만날 수 있도록 역사적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가을밤 LED유등, 미디어파사드, 드론쇼 등 첨단기술로 백제역사 시각화에 방문객들에게 쉽고 화려하게 보

여줘 야간 역사경관 콘텐츠시대를 주도했다는 평가다.

2022 익산서동축제는 서동공원 일원에서 '무왕 백제 왕이 되다'라는 주제로 서동의 탄생부터 서동 선회의 사랑 이야기와 무왕의 웅지를 백제유등으로 전시 연출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상왕국 백제의 꿈을 보여주는 △금마저수지 LED 돛배와 금마 주민들이 손수 만든 한지등을 비롯해 △백제무사체험과 '서동요전설 체험', '서동직업 체험' 등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전북관에서 좀처럼 만날 수 없는 밤하늘 금마저수지 위에서 펼쳐진 수상실경공연과 드론쇼 등은 관람객들을 매료시켰다.

시는 서동축제의 이야기를 담은 백제유등과 야간경관 콘텐츠를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

화하고 지역의 관광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주말과 연휴기간 동안 8만여명이 방문해 미륵사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행사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익산시와 문화재청,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행사는 세계유산 미륵사지의 가치를 첨단 기술인 미디어파사드와 미디어퍼포먼스를 결합한 시각적 종합예술로 표현해 문화유산을 쉽게 향유하고 즐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서탑을 연결한 길이 100m, 높이 10m의 대형 무빙스크린을 통해 미륵사지를 배경으로한 압도적인 미디어파사드와 개막식과 추석연휴에 300대의 드론으로 미륵사 중원 목탑을 실제 크기(43m)로 재현한 드론라이트쇼는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내는데 충분했다.

시는 문화재청의 2023년도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되며 3년 연속 사업을 추진해 앞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22-2023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의도시로서 익산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익산서동축제와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정현을 시장 "10월 축제 관람객 안전 강화해 달라"

서동축제 성공적 평가 속 미비점 개선 당부... "관광 메카로써 준비 철저히"

정현을 익산시장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각종 축제에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사흘 동안 열린 서동축회에 수많은 인파가 방문하며 익산이 야간관광 메카로 도약을 성공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는 그동안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시민들을 맞이한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보다 완성도 높은 행사 진행을 위해 서동축제는 물론 앞으로 개최될 축제에서 각종 개선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철저한 교통 대책 마련과 여성친화 화장실 설치, 개막식 행사 진행 시 지역 예술인 우선 섭외 등을 주문했다.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서동축제는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장 곳곳을 수놓은 유등 전시와 수상실경 공연 등 물과 빛을 활용한 이색적인 볼거리로 낮과 밤이 아름다운 익산의 야간관광 시대를 열었다.

정 시장은 "10월은 축제와 행사의 계절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가 시

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며 "안전·방역 대책을 포함한 축제 개선사항을 차질없이 검토해 명실상부한 축제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익산지역은 이달 한 달 동안 5개의 축제가 연이어 개최된다.

오는 15일 익산평생학습축제, 20일 NS커피페스티벌에 이어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이달 21일 동시에 막을 연다. 마지막으로 익산 보물찾기 축제가 28일부터 30일까지 시민들을 찾는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4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5명을 임용했다.

## "정책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길"

군산시의회, 정책지원관 5명 선발... 의정 활동 활성화 기대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4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5명을 임용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5명을 임명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책지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앞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조사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책지원관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고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해

제9대 의회 활동 기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영일 의장은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들과 일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과 의원들의 정책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회의 전문성은 물론 의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의정활동을 지원해 군산시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의회의 역사도 이제 30년을 넘어선 만큼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내년 복지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군산시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상하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약 4,000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세대당 월 4,590원 정도(연간 55,080원)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장애인 감면 등과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수급자 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금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 요금계(☎063-454-536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미래발전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익산시 미래발전 정책에 시민의 아이디어를 담는다.

시는 시민의 창의적 정책제안과 시민체감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2022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선8기 시민과 함께 익산 대도약을 위한 시민 맞춤형 아이디어 및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익산형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정책 △문화·관광자원, 축제 활성화 △도시문제(교통체증, 소음, 악취, 범죄 등) 해결 △행정혁신·개선 △익산 대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5가지 분야다.

익산 시민뿐만 아니라 익산시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중 3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결과는 최종심사를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군산시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농어촌 마을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농어촌 마을환경개선과 도시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기(육구), 봉동(육산), 정수(개정), 하장(서수), 도서지역(어청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사업비 316억 원(국비 218억원, 시비 98억원)을 투입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다기(육구), 봉동(육산), 정수(개정), 하장(서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처리장 2개소(봉동, 하장) 및 총 하수관로 28.1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오는 12월 사업완료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